

<1주차>

성육신 :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었는데 사람이 되었다는 것

-기독교는 성서(성경)을 통해서, '솔라 스크립투라(오직 성경으로)' 라는 모토로 신을 탐구하려고 한다

-칸트 '요청의 영역' : 하늘에 대한 영역, 규정할 수 없는 영역

'요청 되어 지지 않는 영역' : 땅에 대한 영역

따라서, '요청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풀어내겠다는 것이 기독교가 신을 찾는 방법이다

-테오 프뉴스토스 : 하나님 + 영 =>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성서

구약성경 : 히브리어 => 39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약속

-예수님 께서 구원자로 올 것이다

-천지창조 ~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포로기 까지

구약성경은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1) 토라(Ta) : 율법서 - 모세오경

2) 네비임(Na) : 선지서(예언서)

3) 케투빔(K) : 성문서 - 잠언, 시편, 역사서

구약성경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보편역사 : 천지창조 ~ 노아 홍수 => 창세기 1장 ~ 11장

2) 유대민족의 역사 : 아브라함 ~ 포로기 => 나머지

신약성경 : 그리스어, 헬라어 => 27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약속

-예수님께서 오신 내용

신약성경은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복음서 : 마태, 마가, 누가, 요한

2) 역사서 : 사도 행전(누가 행전)

3) 편지 : 바울서신 13권

4) 묵시문학 : 계시록

=> 성경 전체 : 66권

<2주차>

철학적으로 신의 존재 증명하기

1) 존재론적 논증

-**안셀무스** : "인류가 생각하는 완전한 존재로서 신은 인간의 마음속의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하고 완전하고 전능하고 전지한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생각이 있으며 이러한 신에 대한 생각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생길 수 없다 "

-칸트가 존재론적 논증을 반박함.

2) 우주론적 논증

-**토마스 아퀴나스**

인과율의 법칙 :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것의 원인이 있다"

"더 이상 소급할 수 없는 최초의 원인" => 영원한 자존자 =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 **야훼** :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엘, 여호와, 주, 엘로힘) 의 이름이 있다

-칸트가 우주론적 논증을 반박함 : 전제와 결론의 모순

3) 목적론적 논증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조화로운 질서가 존재한다

-모든 사물이 그 목적을 지향하도록 질서 있게 배열된 것은 우연이 아닌, 그것을 설계한 건축가로서의 이성적 존재인 신이 존재함을 입증한다

4) 도덕론적 논증

-**칸트**

"인간에게는 도덕적 선과 악에 대한 의식이 있어 도덕적 의무감을 갖게 한다"

"도덕적 의무를 명령한 신의 존재가 있을 것임"

하나님의 사랑 : 아가페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

정의의 하나님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도킨스 : 과학이 신이 없음을 증명했다. 신에 대한 믿음은 망상에 불과하다

-맥그라스 :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의 문제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기독교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예수(구원자)" 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말을 함

<3주차>

사도 바울의 "3층 천" => 비물리적인 하늘 공간

창조 7일간의 이야기

Day 1 : 빛

Day 2 : 궁창(공간)

Day 3 : 땅, 바다

Day 4 : 태양, 별

Day 5 : 물고기, 새

Day 6 : 가축, 사람

Day 7 : 안식(휴식) => 완성, 종말

=> 7번째 날에 안식(일을 안하심)

1) 창조의 특징

동식물 : 그 종류대로

사람 : 우리의 형상을 따라 -> 우리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 -> **하나님의 형상대로**

2) 하나님 형상의 의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 **사랑, 인애, 덕, 선**

=> **영원성**

3) 남자와 여자 창조

남자(아담) => 땅의 원소로 창조

여자 => 남자의 갈빗대로 창조

<7주차>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변화

12지파 연맹체제

-공평하게 분배된 가족의 땅을 중심으로 삶

왕정시대 초기

-중앙집권화, 관료제도, 세금징수, 상인들 성장

왕정시대 중기

-남이스라엘, 유다로 나뉘어 졌음

-빈부의 격차 심화, 공동체의 부가 권력과 부자들에게만 머물게 되며 사회적 약자는 위태로운 상황

히브리어로는 예언자를 나비 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 예언자가 쓴 예언서가 몇 장에서 12장 정도 기록된 거는 소예언서 라고 한다

-아모스 :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

여로보암 2세 시기가 정치, 군사, 경제적 번영의 시대였으나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아모스는 당시 사회의 불의, 불공정, 착취 등에 대한 고발을 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법(율법, 토라)를 통해 이거는 불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율법, 토라 :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가르침을 기록

-토라의 어원 : 가르침

-토라 :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의 취지 :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

<율법>

1) 토지법 : 각 가정에 공평하게 분할하여 각 가정이 소유, 빼앗거나 팔아도 안됨
토지법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는 아합 왕 때부터 이다

2) 추수법 : 땅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법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추수해서는 안됨

3) 품삯보호법 :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하면 당일에 돈을 받는 것

4) 담보제한법 : 담보에 한계를 정함 - 채무자의 생존을 위한 약자보호법
-생존 수단인 밭돌
-생필품인 겉옷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담보 물건을 정할 수 없음

5) 안식일 : 7일 단위로 사람과 가축의 쉼을 보장하는 법 (6일 일하고 1일을 쉼)

6) 안식년 : 7년 단위로 사람, 가축, 자연이 쉼과 해방을 얻는 해(6년 일하고 1년을 쉼)

7) 희년 :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이 되는 해방의 해

-토지개혁 : 모든 사고 팔았던 땅이 정착 당시 분배 되었던 가족들에게 되돌아감

-사회개혁 : 종들이 면제되어 자유를 얻는 해로 동등한 평등한 인간관계로 회복

